

베르나르두 실바, 이번 시즌 끝으로 EPL 맨시티와 작별

등록 2026.04.17 13:21:23



[맨체스터=AP/뉴시스]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20)가 17일(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경기 전반 20분 퇴장당하고 있다. 10명이 싸운 맨체스터 시티는 1-2로 패해 1,2차전 합계 1-5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2026.03.18.

[서울=뉴시스] 김진업 기자 =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베르나르두 실바(32)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다.

맨시티는 17일(한국 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실바와의 작별을 공식 발표했다.

실바는 지난 2017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AS모나코를 떠나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EPL 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회, FA컵 2회, 카라바오컵 5회, 커뮤니티 실드 3회,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1회, UEFA 슈퍼컵 1회 등 맨시티 소속으로 총 19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 기간 실바는 450경기(에 출전하며 맨시티 통산 출전 순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맨시티 측은 "실바는 구단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바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소년으로서 꿈을 이루려고 했다. 하지만 이 도시와 이 구단은 내가 바

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안겨줬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어 "몇 달 뒤면 맨시티와의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다. 팬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동안 보내 주신 변함없는 응원은 절대 잊지 않겠다"며 "선수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팬으로 이곳을 떠난다. 평생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맨시티는 아스널과 2025~2026시즌 EPL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경기 덜 치른 2위 맨시티(승점 64)는 1위 아스널(승점 70)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두 팀은 오는 20일 오전 0시30분 맨시티 홈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